

넌 책으로 읽었니? 난 드라마로 본다~

‘커피프린스 1호점’ ‘내 이름은 김삼순’ ‘불멸의 이순신’(원작 ‘칼의 노래’) ‘옥탑방 고양이’ 등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드라마들 중에는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 많다. ‘식객’ ‘대물’ 등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소설 원작의 드라마 제작은 다소 주춤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 인기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이 잇따라 제작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달콤한 나의 도시’ ‘스타일’ 등 소설 원작 드라마 잇따라 제작

오는 6월 6일 첫 방송될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SBS)는 소설가 정이현씨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일간지 연재소설이었던 ‘달콤한 나의 도시’는 단행본으로 발간돼 25만부가 판매된 인기소설. 여기에 영화 ‘인어공주’를 통해 호흡을 맞춘 박흥식 감독과 송혜진 작가가 드라마의 연출과 대본을 맡아 방송 준비가 화제가 됐다.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는 직장생활 7년째인 31세 여성의 일과 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현실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최강희가 자신과 동갑인 1977년생 평범한 싱글 여성 오은수를 연기하고, 지현우와 이선균은 각각 은수보다 일곱 살 어린 하인 영화감독 지망생 윤태오와 유기동업체 CEO 김영수 역을 맡았다. 드라마는 원작의 에피소드와 캐릭터를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어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을 소설 속 인물과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할 듯하다.

지난해 세계문학상 수상작인 백영옥씨의 장편소설 ‘스타일’도 드라마로 만들어진다. ‘스타일’은 31세 패션 잡지 여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패션계의 치열한 생존 경쟁, 사내 정치와 연애, 명품 이야기 등을 재기 발랄하게 그린 소설이다. 드라마 ‘스타일’은 젊은 세대의 감각에 부합하는 경쾌한 소재를 위주로 해서 16~20부 내외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원작자인 백씨가 직접 드라마 대본도 집필한다. 드라마는 올 12월에서 내년 3월 사이 SBS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이들 드라마는 지난해 한국 문단에서 주목을 받았던 한국형 ‘치릿’(젊은 도시여성들의 일과 연애, 취향 등을 다룬 소설) 소설들을 원작으로 일과 사랑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 여성을 그릴 예정이어서 20~30대 여성 시청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또 오는 9월에는 이정명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역사극 ‘바람의 화원’(SBS)이 방송된다. 조선시대 천재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의 이야기를 그린 ‘바람의 화원’에서 국민 여동생 문근영이 남장 여자로 살아가는 신윤복 역을 맡았으며 박신양이 남자 주인공 김홍도역에 캐스팅됐다.

드라마 ‘바람의 화원’은 ‘한국판 다빈치코드’란 별칭처럼 천재화가 신윤복이 왜 도화사에서 쫓겨났고, 여인들을 즐겨 그렸으며, 유명한 ‘미인도’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등을 추적한다. /이은미기자 emlee@

은 6월 6일 첫 방송될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SBS)는 소설가 정이현씨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일간지 연재소설이었던 ‘달콤한 나의 도시’는 단행본으로 발간돼 25만부가 판매된 인기소설. 여기에 영화 ‘인어공주’를 통해 호흡을 맞춘 박흥식 감독과 송혜진 작가가 드라마의 연출과 대본을 맡아 방송 준비가 화제가 됐다.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는 직장생활 7년째인 31세 여성의 일과 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현실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최강희가 자신과 동갑인 1977년생 평범한 싱글 여성 오은수를 연기하고, 지현우와 이선균은 각각 은수보다 일곱 살 어린 하인 영화감독 지망생 윤태오와 유기동업체 CEO 김영수 역을 맡았다. 드라마는 원작의 에피소드와 캐릭터를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어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을 소설 속 인물과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할 듯하다.

지난해 세계문학상 수상작인 백영옥씨의 장편소설 ‘스타일’도 드라마로 만들어진다. ‘스타일’은 31세 패션 잡지 여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패션계의 치열한 생존 경쟁, 사내 정치와 연애, 명품 이야기 등

‘스포트라이트’ 손예진·지진희

“수습기자처럼 머리도 못감고 촬영”

“그제는 한 시간을 잤고, 어제는 차에서 30분 잔 게 전부예요. 수습기자들이 며칠씩 머리를 못 감는다는데 배우들도 촬영을 하다 보면 그럴 정도 머리를 감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 손예진(26)은 사흘째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촬영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그 옆에 앉은 지진희(37)는 극중에서 선보인 냉정한 사회부 ‘캡’(사건사고 판

권 선임기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시종 미소를 잃지 않았다.

기자 세계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MBC TV ‘스포트라이트’(극본 이기원, 연출 김도훈)의 두 주인공 손예진과 지진희, 손예진은 극중에서 최충우를 하며 기자와 영커로 성장해 나가는 사회부 2진 서우진 역을 맡았다. 지진희는 진실보도를 지향하는 캡으로 서우진을 진정된 기자로 거

듣나게 하는 오해석으로 등장한다.

“신인 시절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연기에 의욕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극중 서우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기도 해요. 어찌 보면 둘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손예진)

지진희는 신참 기자를 혹독하게 다루는 캡의 연기가 군대 문화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무조건 후배를 다잡는 것이 아니라 기자정신에 입각해서 가르칠 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수



손예진(왼쪽)과 지진희.

영화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인디애나 존스 4 :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139만6천171	161만6천466
2	나니아 연대기 : 캐스피언 왕자	30만2천599	108만5천681
3	아이언맨	20만5천282	407만7천628
4	갯 썸	5만4천325	6만3천748
5	테이큰	3만6천119	232만5천772
6	페넬로피	3만2천231	19만5천520
7	스피드 레이스	2만162	79만4천137
8	날나리 중부전	1만4천103	63만4천129
9	호튼	5천290	12만463
10	명탐정 코난 : 베이커가의 망령	3천152	12만2천273

(단위:명)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이산	MBC	31.2
2	조강지처 클럽	SBS	29.1
3	엄마가 뽀뽀	KBS2	24.8
4	나는 내운명	KBS1	21.8
5	행복합니다	SBS	21.0
6	해피 선데이	KBS2	18.3
7	해피 투게더	KBS2	16.4
8	일지매	SBS	16.2
9	KBS뉴스9	KBS1	15.6
10	대왕세종	KBS2	15.4

(단위:%)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삼국지: 용의 부활	액션
2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드라마
3	나는 전설이다	스릴러
4	위	액션
5	마이 뉴 파트너	액션
6	명장	액션
7	황금나침반	판타지
8	람보 4: 라스트 블러드	액션
9	베오울프	액션
10	어거스트 러쉬	드라마

(자료제공:비디오코리아)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서커스	MC 몽
2	One	애픽 하이
3	화분	일렉스
4	우산	에픽하이
5	리리리	SG워너비
6	가슴으로 외쳐	맨데이키즈
7	추억속의 그대	이승기
8	썬!	쥬얼리
9	발자국	맨데이키즈
10	아이처럼	김동률

(자료제공:멜론)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榮**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부 222-4918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광고이케팅국
정재부 2200-616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문화홍보국 2200-541
사회2부 2200-619 (팩스 222-0195)
(팩스 227-0118) 독자서비스국
문화생활부 2200-626 2200-551
어린이재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주) 조이트레블
대표전화 (1183) 234-3222
팩스 061-271-1111

일본 스키여행
299,000
399,000
429,000

중국관광
549,000 (항공) 459,000
279,000

신학소 빌딩 특가행사!
399,000
629,000
599,000

749,000
829,000
829,000

1. 이태리 빌딩 8월 1,890,000
2. 이태리 빌딩 8월 1,990,000

699,000
649,000
239,000

미국비자 **중국비자**
062-233-5900